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환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오하이오주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켄트 주립대학교는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에 위치하여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는 대략적으로 5만명 정도가 거주 하고 있고, 다운타운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권도 많이 발달된 편이 아닙니다. 차타고 20분거리엔 애크런이라는 공항이 위치한 도시가, 40분 거리에는 클리블랜드라는 비교적 큰 도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의 장점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시카고, 워싱턴 주에 위치한 워싱턴, 나이가라라 폭포와 토론토가 각각 6시간 거리 내에 위치 하고 있어서 차를 타고 여행 하는 경우, 타 학교에 비해 좋습니다.</p> <p>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보통 학교내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평지가 많기 때문에 걷는데 힘든 점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교내에서 많이 타고 돌아다녔습니다</p> <p>계절은 한국과 같이 4계절로 구분 되어 있고, 한국의 신창 날씨와 정확하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켄트 주립대학교는 인도, 아랍,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들이 많아 여러 나라의 문화 또한 배우기도 쉽고 학교 내에 프로그램 및 축제가 많아서 행사에 참여하면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p> <p>학교 위치 (4.8/5.0) 학교 규모 및 시설 (4.5/5.0) 마을 발전도 (3.2/5.0)</p>

<p>2016-2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창업학을 복수 전공 하고 있어서 경영 2과목창업 2과목을 주로 들으며 수업을 했습니다. 경영학은 미국에서 Finance Accounting, Marketing, Business administration과 같이여러 개의 과목으로 분류 되어 있는데, 외국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이선이수 했던 과목들을 미리 보내고 미국에서 심화로 배우고 싶은 전공을 세부적으로 지목하여 배우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주로 마케팅과 창업을 선택 하였는데, 회계 과목은미국회계와 한국 회계 기준이 달라서 선택하지 못했었습니다.</p> <p>마케팅 수업은 주로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In class activity와 같은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함께 과제를 하는 활동이 자주 있어서 배웠던 내용을응용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한국 과는 다르게 발표를 다들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Service marketing과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수업을 들었는데, 이 AD과목에선 교수님이 과제로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 Brochure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고, 이에 따라 저도 미국의 화장품샵 Ult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향수 Brochure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처럼 학생들이 실무 생활에서 사용 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교육과 실습을 병행 하는 느낌을많이 받았습니다.</p> <p>창업학 수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학생중 대부분의 학생이 잘 모르는 복수전공 과목 중 한 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 심화 하는 것보다, 경영학과 창업학을 복수전공하면 얻어 가게 될 지식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이 창업학과 겹치는 분야가 많지만, 창업학은대부분 실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영학에서 했던 수업보다 창업학 수업을 더 선호하게되었던 이유는 바로 수업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영학 수업에서도 학생들은 충분히 적극적이었으나 창업학수업에서는 적극성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 할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수업자료로 창의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였기때문에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물씬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던 수업은 Sales in entrepreneur venture 와Entrepreneurial tool이었습니다. 한국의 창업 수업도 적극성을 요하고, 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지어서 창업 아이템을</p>
------------------------	---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실제로 창업 동아리와함께 움직이며 창업을 시도해 보는 것들이 한국 수업이라면, 미국에서 가르쳤던 방식은 앞서 말했다시피실무와 관련된 활동도 하며 창의적인 수업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세일즈 수업에선 학생들에게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놓고 이중에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판매 하라는 재치를 요구 하는 수업, 조를 짜거나 개인으로 두꺼운 도화지를 주고 여기에 동전을 넣어 비행기를 접되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비행기에게추가점수를 주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UCC를 제작하게 하여 실제 비행을 하기 전 홍보 영상을만들어 보고 고객들에게 평가 받음으로써 광고의 기대효과를 주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실제로 비행기를날려보며 학생들과 소통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창업할 때사용했던 모델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사업하고 싶은제품을 만들어서 그 포맷을 가지고 한달동안 수업에 나가지 않고 생각하여 실제로 세일즈 맨이 기업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가정을 한 인터뷰를 교수님과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실제 환경과 비슷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세일즈 맨과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낼때도, 인터뷰 영상 또는 녹음을 요구하며 실천을 해야한다는 의무가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수업 또한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Entrepreneurialtool 수업은 한국에서 원가 회계에 조업도 기준 ABC 원가 회계방식을 활용하여서 실제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사용해야 할 손익분기점, 마진 분석을 배우고, 실제 기업에서 활용된 Case Study를 통해서 실제 수치를 활용하여분석하는 점에서 다른 점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Studio HipHop 수업에선 학교 거리에서플래시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Sales in entrepreneur venture (4.9/5.0)

Advertising and promotion (3.8/5.0)

Service Marketing (4.0/5.0)

Entrepreneurial tool (4.2/5.0)

Studio Hip Hop(5.0/5.0)

Pilltes (4.7/5.0)

Weight training (4.6/5.0)

<p>2017-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2017 1학기 Spring Semester에는 4학년 이다 보니까 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대부분의 과목을 수강을 했던 터이라 다른 대안이 없이 4학년 수업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공으로는Marketing Analysis, Advaned personal selling, 복수전공으로는 Entrepreneurial Finance, Strategic dilemmas in entrepreneurship, Speakers in entrepreneurship 수업을 들었고 총 13학점이었습니다. 직전학기에 15학점을 수강했던 터이라 무난하게 16학점까지 수강 할 자신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3학점을 더 신청 했었지만 4학년 전공의 어마어마한 과제의 위엄과 4학년 전공 학생들과의 수준 차이 이에 더해 전 학기에 썼던 금전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재값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더하여 13학점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마케팅 분석론은 국내에서 배우지 않는 외국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도표화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을 들었고, 매주 과제를 하면서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두번 째로는 어드밴스 퍼스널 셀링 클래스인데 저번학기에 들었던 세일즈 클래스의 심화 과정으로 실제로 시판된 Spin selling 이라는 책에 내용을 공부를 하고, cold calling(미국에서 전화 판매 업무)와 관련된 직장에 직접 견학을 가거나, 이들이 사용 하는 자료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실제로 여러번 롤플레이를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무수업에서는 미국에서 회사를 오픈할때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와 회계 및 재무 관련 내용을 공부했고, 딜레마 수업에서는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책과 함께, 12개의 하버드 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를 매주 읽어 오며 학생 및 교수님과 토론 하는 시간 과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 클래스는 교수님이 각 외부 창업가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측면도 좋게 보았습니다.</p> <p>강조 하자면, 자매대학의 장점은 우리 학교에서 수강할 수 없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교육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모든 수업이 같지는 않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경우 미국의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이 결합하여 많이 발전해 왔고, 한국에는 없는 세일즈 분야까지 수업 커리큘럼이 있을정도로 다양합니다. 반면에 이들도 아직</p>
------------------------	--

	<p>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교수님들마다 매번 reflection paper를 받으면서 수업의 발전을 주도 하시는 편이라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듣지 못할 수업들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자기것으로 만들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p> <p>Advanced personal selling (4.8/5.0) Marketing Analysis(5.0/5.0) Strategic dilemmas (5.0/5.0) Speakers in entrepreneur(5.0/5.0) Entrepreneurial Finance(4.3/5.0)</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가을 학기에 처음 시작 했을때 홍보 브로슈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기 시작전 8월 마지막 전주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이 있으니 이때부터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 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 후 매주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시면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많은 모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Korea Culture Club 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 좋아하고 많이 챙겨주니 가입 하셔서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보통 날씨와 같은 경우 한국과 같은 4계절이 있으며 도착하는 8월은 햇볕이 워낙 강해서 선크림을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많이 내리는 편이 아니고 겨울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영하 6도를 웃도는 기후입니다.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고, 자주 오는 편인데 엄청 쌓이는 것도 아니라서 맘 편히 한국 기후와 같이 옷 준비해 주시면</p>

	됩니다. 하지만 패딩은 꼭 한 개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시카고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위험한 동네가 몇 있었으나, 켄트에서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입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V)(4.2/5.0) 홈스테이 () 외부 숙소(V) (5.0/5.0)</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Centennial Court E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가격은 \$3560 였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고, 시설은 Centennial court 자체가 신식 건물입니다. 개인룸부터 2~3명 이 쉰어 할수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학기에 \$3000~4000사이 입니다.</p> <p>이밖에도 많은 기숙사가 있으니 지원시 참고 바라겠습니다.</p> <p>외부 숙소에서 사는 경우에는 월 \$560~800 정도 하며, 가구의 여부와 전기 및 수도세 (utility fees)에 따라 가격이 천차 만별입니다. 저는 학교 옆 Kent Village에 살았는데 보통 One-bedroom은 750불, studio는 565불 정도 하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 실수 있습니다.</p> <p>추가적으로 보통 방을 Sublease(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를 하는 경우, 1 년 짜리 새로운 계약당 1 번 정도 가능 하며, 이는 구하는 방마다 규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p> <p>제가 살고 있는 방은 1 년 계약에 sublet 을 한번만 할 수 있으며, sublet 에 필요한 서류 작성비용인 \$50 이 추가 경비로 들어갔습니다</p> <p>다른 방에 경우, short-term live fee 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방에서 나올때, 살았던 기간만큼 \$50 을 더 주고 나올 뿐만 아니라, 새로 인도 받는 사람도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외국인은 계약을 할때 F-1 또는 J-1 비자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p> <p>학기는 보통 8 월에 시작 되나, 기간이 다가올수록 방을 계약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새학기 시작 한학기 전에 방을 예약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p>

	<p>추가적으로 학교에 지인이 있는 경우 부탁해서라도 방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p> <p>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사는 경우 밀플랜은 절대로 신청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p> <p>밀플랜을 신청하면, 돈이 학교에 귀속되어 사용이 매끄럽지 못한 반면, 일반 카드를 써도 나가는 지출은 동일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학교에서 기숙사와 외부 아파트를 둘다 이용해 봐서 학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밖에서 나가서 사먹거나 만들어 먹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p> <p>학교 내에서 저녁 먹을경우 보통 튀김 음식밖에 없고, 기숙사 1층 시설 아니면 스튜던트 센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p> <p>꿀팁은 하바네로라는 멕시코 음식 집이 있는데 부리또나 부리또 볼 시키지 말고 2 tacos를 시키면 저렴한데 양은 훨씬 많습니다.</p> <p>학교 식사 평균 10불</p> <p>외부 식사 평균 15불</p> <p>만들어 먹으면 6불 이내</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교내 순환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기숙사에서 학교 통학할때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오프캠퍼스를 산다면 지역마다 버스 노선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타야합니다</p> <p>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am~11pm 까지 버스가 운행하니 많은 지장은 없고 한국과 달리 우버, lyft가 활성화 되어있어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p>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p> <p>비자</p> <p>교환학생 면접에 합격 한 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마지막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마음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p>

우선 각 자매 학교에서 날라오는 비자 DS-2019 또는 I 20 원본을 수령을 한 후에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1.온라인 DS-160 작성 (최근 6 개월 이내 흰색배경 가로세로 5x5 사진 필요)

2.서비스 폼 작성 및 영수증 출력 (DS2019 또는 I20 원본이 있어야 가능)

20 만원 정도

www.fmjfee.com

3.비자인터뷰 예약하기 20 만원 정도..

4.서류준비 (6 개월 이상여권, DS2019 원본, 사진, 서비스 영수증, 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원,재학증명서, 학교 입학허가서 등.) 솔직히 검사 했던건.. 여권, 서비스 영수증, Ds2019, 사진 네가지 었음..

5.비자 인터뷰 (가벼운 소지품까진 지참 가능)

6.비자 수령 (몇주 소요..)

비행기 티켓

1 년 이상 체류시, 왕복티켓 끊는 것이 어려움. 그러므로 편도를 끊어도 상관 없음.. 편도티켓 구매시 Whypaymore 사이트 나 여러 항공편 사이트에서 싼 비행기 티켓 사기 (2 개월 전? 최대한 빨리)

미국 서부 (샌프란, LA)에 먼저 도착하고 연결 항공편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도 있음

하우징

대부분 미국은 8 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8 월 학기에 맞는 하우징은

대부분 1 월~5 월 사이에 마감. 현지 학생이 아닌 이상, 오프 캠퍼스에 방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숙사비가 비싸다면 고려해 볼만함. 1 년일 경우 기숙사, 오프캠퍼스 둘 다 살아보는걸 추천하지만, 기숙사는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힘들.

수강신청

메일이 자매학교에서 날라오는걸 수시로 확인하고,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엔 경영학과는 세부적으로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pre requisite 과 같은 선이수과목을 수강 한 사실을 증명을 해야만 전공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수강신청을 하고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과목들이 수강신청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현지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해볼것을 권유 합니다. 만일 안하고 버티다가 잘못되면모든 수강신청을 취소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영문 실라버스를 구해야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서 신청하시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또한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 비용 Distance fee 항목이 붙기도 합니다

학교 등록금 납부

본교 말고, 자매학교에도 등록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럴땐, 은행에 직접 가서 외국은행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수수료를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등록금의 5%정도 수수료가붙습니다.

외국에 나가기전 통장 개설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송금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주로 BOA, Citi 가 ATM 에서는 출금하기 편하며, 일반 은행 (국민, 하나, 신한등)에서 해외 거주인 송금융 외환 계좌를 보유하게 되면, 외국에서 통장을 개설 했을 때, 외환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CITI 신용카드를 부모님과 가족 연계를 하여 개인 신용카드를만들어서 미국에 갔고, 부모님이 한국 계좌에 용돈을 넣어 주시면, 미국 ATM 에서 즉시 출금해서 달러로 사용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달러를 받거나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외화 송금시* 라우팅 넘버와 미국 계좌번호가 필요한데..! 밑에 사진에 수표부분을 참고 하자면 앞쪽에 위치한 10 개의 숫자는라우팅 넘버, 뒤에 10 자리는 계좌 번호라는 사실을 염두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만 Immunization form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한국에서 돈 내고 했는데, 미국 가면 공짜로 검진 및 예방접종 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도 개인적으로 투자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국 돈을 들고 가거나 송금을 받는 상상할 있을 때, 환율이 비싸면필요한 만큼 사고, 1100 원 정도로 떨어질 때, 모두 달러를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00 \times 1,100 = 11,000,000$
 $\$10,000 \times 1,200 = 12,000,000$ 외화 재테크...!

미국 현지 생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각 학교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기숙사를살던 외부에 살던 학교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지만 기숙사 방값과 자취방의 방값을 고려하여 싼 쪽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켄트 주립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조금 비싼편이었는데요, 1 학기에 3500 불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off-campus 는 한달에 500~900 불까지 있는데 주로 Studio 에 살면 600 불 이하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이 일찍마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기 1 학기 전에 미리 방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 월 개강에 맞춰 방에 가고 싶다고 하면, 교환학생이붙은 직후, 1 월 경에 미리 연락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연락을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 100 불 남짓과 비자, I-20 or DS2019 가 필요 하지만 말을 해놓고 서류를 조금 이따가 제출 해도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미리 현지 학교에 한인들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기숙사를 살지 않으면 가구를 구매 해야 하는데 이를 저렴하게 물려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저 또한 여기있었던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부터 설명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담고 싶은 내용도 너무나 많은데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담아서 적는데 한계가 있어서 두서없이 올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예전에 미리 적어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 없이 모두 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나가실 때 준비하실 사항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처음으로 여러가지 영어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서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은 스스로 해서 얻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해서 물어보고 얻어가셔야합니다.

영어에 관련한 조언으로는 보통 외국 나가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미국에서는 배웠던 영어를 적용시켜 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가시기 전에 수많은 단어들을 머릿속에 넣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대화하면서 영어 발음과 스피킹 실력을 향상 시키시길 바랍니다.

한국인과 어울려도 좋지만 어울릴 수 있는 외국인 또한 어마어마 하게 많으니 그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친해지고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른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는 1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행은 같이가되, 외국인 학생들과도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는 1년 단위로 진행되어 중간에 나가려면 엄청나게 힘이듭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출국 전 5월 정도 쯤에 외국에 컨택을 많이 해서 오프캠퍼스 사는 방식을 택해 보시고, 만약 기숙사 살더라도 나중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조심해서 차근차근 서류를 작성하시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집안이 부도가 났다라는 스토리를 3장짜리 에세이로 작성하여 2주 넘게 오피스에 왕래 하며 수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운전은 조심히 하시고, 미국 법규 스탱사인을 지키고, 연료는 필히 가솔린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이버 검색했다가 차에 디젤 넣고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하하.. 또 소화전 옆에 주차 하시지 말고, 한국과 다르게 건인지역에서는 시동을 키고 정차 하는 것도 먹히질않으니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주차하거나 정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구글 맵을 이용하면 네비게이션사용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톨비가 많이 나올 때 있는데 맵에서 톨 요금 제거를 선택하면 국도를 타고 가게 됩니다.

미국에는 속도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 경찰차가 있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을 통해서 외국에 1년동안 살아보는것과 단순히 여행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새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도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 파티 가서 많이들 친해지세요! 한국에선 절대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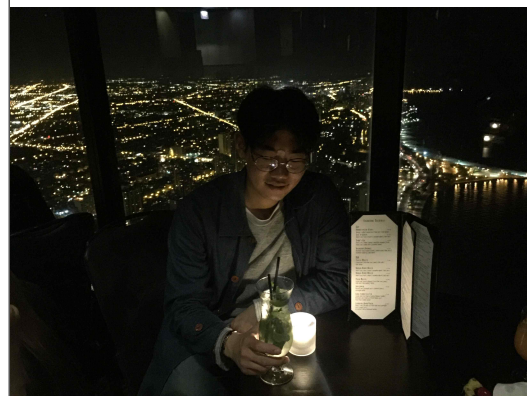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보고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추가적으로 같은 자매 대학에 전에 갔던 학생의 연을 이용하여 새로운 친구를 소개 받고, 방을 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등을 공유 하는데 앞서 많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후배 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번호 010-6858-2793 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jninoo@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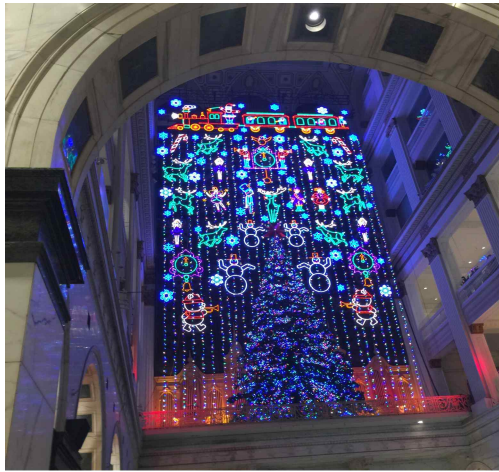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hanks giving day 때 친구 집에서 한식 만들기



시카고 윌리스 타워 스카이 바에서



크리스마스 Macys 매장에서



뉴욕 해피 뉴이어 타임스퀘어



학교 축제 노래부를때



피츠버그 파이어츠 야구 직관 강정호
선발